

# 강도높은 검찰, 한전 비리 전방위 수사

### “일부 업체가 협력업체 지위 독식” 의혹 불공정 입찰 등 계약 시스템까지 수사 확대 나주시사 이외 다른 지역도 조사 방침

검찰이 한전 직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한국전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검찰의 칼끝이 지금까지는 한전 나주시사 직원들과 계약 업체간 뇌물 비리 등 주변부를 겨냥했다면 한전의 자체 계약 시스템 및 각 지역 사업소별 공사 뒷돈 비리 등 다방면(多方面)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직원 개인 비리로 애써 치부했던 한전은 전전공공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15일 한전 나주시사 전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관련, 한전 공사 계약 시스템 등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전 나주시사장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을 뒷돈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한 데 이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도 대해서도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나주시사 직원들의 ‘뒷돈 거래’ 사건이 불거진 뒤 전기 업계에서는 입김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는 관행적인 행태뿐 아니라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진행된 ‘2015~2016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대표 3명이 19개 회사 명의로 협력업체 지위를 확보한데다, 이들을 포함해 무려 30여개의 협력업체 지위를 10여개 업체 대표가 차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 입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구속된 나주 S업체 대표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인 7개의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됐었다. 전남경찰도 지난해 말 한전 협력업체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장, 2년마다 이뤄지는 계약에 따라 한

전 협력사로 선정되면 1건당 8000만원 이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곧바로 탈락 업체에 웃돈을 주고 사업체를 양도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 번 입찰로 2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탓에 100여개 협력사로 선정되기 위한 지역 내 1000여개 전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수십여개 협력업체 지위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검찰은 또 한전 지역 사업소별로 특정 소속 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사 업무가 이뤄져 온 점을 들어 최근 드러난 나주 지사 비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비리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업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기간(20일)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전기 업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장, 입찰에 탈락한 지역 전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조만간 구체적 문제점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지역 전기업체 관계자는 “통신 협력업체로 1개만 되도 업계에서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이 있는데 특정인을 중심으로 일부 업체 대표가 30여개를 독식한다는 건, 입찰이 제대로 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두운 표정의 유병언 부인·장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가 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노조원 입원 중 자살 시도 중태

최근 폐암으로 숨진 동료의 장례식장에서 선배 노조원과 딸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 단체교섭 위원인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15일 새벽 5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A병원에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노사 임단협 단체교섭 위원인 박모(36)씨가 목을 맨 채 발견됐다. 박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박씨는 지난 7일 광주 B장례식장에서 동료가 폐암으로 숨진 것과 관련, 향후 대응 문제를 놓고 선배 노조원과 딸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해 A병원에 입원한 것

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금협상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장인 박씨는 자살 시도 직전 다른 동료에게 폭행 사건 과정의 역할을 함을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인 박씨 등을 불러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를 당하고도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보고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재판정서 공개된 진도VTS 직원들 동영상 보니

## 골프 연습에 미용팩까지... 관제 소홀 근무행태 ‘한심’

검찰, 13명 징역1~3년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직원들의 나태한 근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진도 VTS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서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 심리로 열린 진도 VTS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에 앞서 관제실 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았다.

애초 피고인인 직원들은 ‘CCTV가 워낙에 설치된 장비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개됐다.

검찰이 재생한 CCTV 영상 속 직원들의 근무 행태는 한심했다. 관제 구역 연안 쪽의 1섹터와 만배다 쪽의 2섹터로 나눠 각각 1명씩의 관제사가 근무하는 ‘구역책임제’를 시행한다

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야간 근무 때는 직원 1명이 관제 업무를 도맡는 변칙 근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혼자 근무하면서도 관제 화면보다 휴대 전화나 관제용이 아닌 다른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다. 근무 교대를 하지마자 바로 옆으로 자리를 옮겨 모습, 옆의 빈 의자를 끌어당긴 뒤 다리를 올리고 대놓고 잠을 자는 행위, 임정업) 심리로 열린 진도 VTS 소속 직원 1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에 앞서 관제실 내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았다.

검찰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한테 근무를 미루고 자는 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냐”며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전 센터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 취소 정당”

####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

청해진해운이 관제 당국의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5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해상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 항로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항로 면허에 대해 취소를 당하도록 규정한 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해 5월 12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같은달 29일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도 취소되자 “여러 개의 항로 면허를 가진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가 하나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31사단 적 침투 대비 훈련

18~20일...주민 협조 당부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권혁신 소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동계 적 침투대비 훈련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추방지역 침투 상황을 가정해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31사단 예하 모든 부대는 사전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에서 전·평시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한다.

31사단의 한 관계자는 “작전 지역에서는 검문소가 운영되고 공포탄이 사용되니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1. 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2. 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3. 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4. 사무실임대  
치평동 우리은행위  
학원, 모든업종가  
50평, 고정주차있음  
시설비, 리모델링  
2천 60만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1 기본 경매 강의
- 2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

###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㉟ 오전10시~오후 7시  
㉟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 (주)대신경매 추천 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1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3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4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5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6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7 북구 충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 8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 9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

임야

- 1 북구 매곡동 토지 451 감정 1억1천, 최저 7천8백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처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